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소식

제 52 호 / 2017년 9월 25일

<http://gsph.yonsei.ac.kr>



▲제 49회 APACPH 학술대회 개최식



▲2017년도 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7년도 8월 학위 수여식



▲2017년도 베트남 수학여행

CONTENTS

- | | |
|-----------------------------|-------------------------------|
| 2p [기획특집 1] APACPH 학술대회 | 9p 외국 연자 초청 |
| 3p [기획특집 2] 40주년 기념사업 진행 현황 | 10~11p 학과 소식 |
| 4~5p 신입 교수 소개 | 12~13p 고위과정·전문가과정 소식, ICUH 소식 |
| 6p [졸업생/신입생 한마디] 이현정/연정원 | 14~17p 교수 동정 |
| 7p [재학생 근무기관 소개] 이대형 | 18~19p 총동창회 소식·원우회 행사 |
| 8p 보건대학원 소식 | 20p 공지 사항/학사 안내 |

발행인 : 노재훈 보건대학원장 / 편집위원회 위원장 : 이상규 부원장 /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 김태현 / 편집위원 : 박소희, 김태현, 이희원

기자 : 유영선, 박주만, 김화영, 이예슬, 주영준, 김은지, 양지현, 전주은, 황세미, 신지혜, 박해리, 김성훈, 이현정, 김시우, 백상숙, 한민경, 선지유

총학생회장 이승훈, 동창회장 조경희, 동창회 사무국장 강성원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전화 : 02)2228-1506~7 팩스 : 02)392-7734

보건대학원 40주년 기념

APACPH 학술대회 다시 개최

지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총 4일간 아시아태평양 보건대학원 협의회(Asia-Pacific Academic Consortium for Public Health, 이하 APACPH) 학술대회가 우리 대학원 주최로 인천광역시 송도에 위치한 우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0개국 약 1,000여명의 학자와 정책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보건대학원 40주년을 기념하여 다시 주최한 것으로 지난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3번째로 다시 유치한 것입니다.

8월 16일에는 Pre-Conference가 열려 WHO workshop, APACPH 총회, 보건대학원장 회의가 열렸으며 17일(목)~19일(토) 3일간은 국제캠퍼스 다목적체육관을 위시한 진리관의 강당과 각 강의실에서 14개의 Parallel Symposium과 31개 주제를 가지고 263개의 구연발표와 211개의 포스터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The Age of Shifting Paradigm: SDGs, New Approach For Pulic Health’를 주제로 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건으로 현안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학술 교류의 장으로서 각 회원 기관 및 대학원의 교육 연구를 위한 역량 및 각 국가의 보건으로 수준 향상과 관련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Plenary Symposium은 ‘Selective to Inclusive ; GHSA’, ‘From MDG to SDG’, ‘Parallel to integral ; UHC’, ‘From Analogue to Digital: 4th Industrial Revolution’의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의 견해와 논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7일 국제캠퍼스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개막행사에는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과 우리대학교 김용학 총장의 축사에 이어 우리대학원 노재훈 원장의 개회선언으로 학술대회가 개막되었습니다. 우리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의 명예원장으로 취임한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은 기초연설에서 지속가능목표(SDGs)를 통한 보건의료 분야의 지속가능성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19일 폐막행사에서는 우리 보건대학원과 대한보건협회, 한국보건대학원협의회의 지원으로 약 30여명의 신진 연구자들에게 우수



구연발표와 포스터발표에 대한 시상과 상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우리보건대학원은 지난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3번째로 이 학술대회를 주최하였으며, 학술대회 조직위원으로 노재훈 보건대학원 원장이 위원장을 대한보건협회 박병주 회장, 한국보건대학원 협의회 이강숙 회장 등이 위원을 맡았습니다. 또한 Parallel Symposium을 개최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대학원협의회, 서울대학교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및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APACPH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규모가 큰 보건대학원으로 이루어진 국제 보건대학원 조직체로서 지난 1984년 5명의 회원에 의해 창립된 이래 현재 아태지역 23개국에 81개 이상의 회원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보건 교육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보건과 관련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대학원 40주년 기념사업 진행 현황

우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1977년 3월 1일 개원하여 올해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대학원은 뜻 깊은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 가지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보건대학원 40년사 발간

보건대학원은 1997년에 보건대학원 20년사를 발간한 이후 20년 동안 우리 역사에 대한 자료 정리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40주년을 맞아 40년사 발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유승홍 명예교수를 편찬위원장으로 하여 이상규 부원장, 남정모 교수, 지선하 교수, 김지만 교수, 이희원 팀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40년사 발간을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건대학원 설립배경 및 교육목표, 보건대학원의 관리 및 운영, 보건대학원 학사 등 총 8장으로 구성되며, 12월 4일(월) 오후 4시 30분부터 보건대학원 40년사 출간회 겸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건대학원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2. 보건대학원 40주년 기념 동영상 제작

보건대학원 40년사 자료를 토대로 보건대학원 40주년 기념 동영상이 제작될 예정입니다. 약 8분 분량으로 알렌의 광혜원



(양재모 전보건대학원장 강의 장면)



(국민건강증진연구소 개소식 장면)

설립으로부터 김창세 박사에 대한 이야기, 보건대학원 설립과정, 김일순 전 보건대학원장 및 노재훈 원장 인터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보건대학원의 역사를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 보건대학원 History Wall 제작

40주년 기념 주요사업 중 하나는 보건대학원 History Wall 제작입니다. 보건대학원 3층 입구와 고위과정 앞 벽면을 활용하여 보건대학원의 주요 역사와 그에 따른 자료 및 사진을 전시하여 보건대학원 학생 및 외부 손님 또는 일반인들이 우리 보건대학원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시설물이 될 것입니다. 현재 콘텐츠 구성 중에 있으며, 2학기 중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강화 석사과정 현황

(2017.8.13.~2021.1.9.)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약 5년 간 개발도상국 보건의료계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총 60명을 선발해 보건안보분야 차세대 지도자로 교육하는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강화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KOICA에서 총 25억원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본 과정은 국제보건학과 서원석 교수팀이 중심이 되어 글로벌 보건안보 예방, 감지 및 대응을 각각 주제로 하는 3차 과정으로 편성됐으며, 각 과정별로 20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17개월 간 5학기 석사학위과정이 운영됩니다.

2017년 8월 제1차 과정인 글로벌 보건안보 예방과정이 개설돼 운영 중입니다. 8월 14일(월) 오후 2시에 열린 입학식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개발도상국 12개국에서 온 20



명의 연수생이 입학했으며 의료원 행정책임자 및 연세대학교 교무위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본 과정은 메르스, 에볼라 등 각종 감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시대에서 글로벌 보건안보 구축이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의적절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보건의료체제가 잘 정비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실제적인 요구를 반영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보건안보분야 파트너십 강화 및 우호관계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모교에 돌아와서



국제보건학과 연구교수 서원석

1993년 5월 몽골에 교환교수로 파견되면서 의료원과의 관계는 유지했지만, 의과대학을 사실 상 떠났다가 올 3월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로 다시 복귀하니 수많은 생각들과 매우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회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진 나이지만, 다시 모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벅찬 감정으로 첫발을 내 디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학기를 마치고 2학기를 준비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보건대학원 중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국제보건학과를 설립하고 그동안 수많은 국내외의 지도자를 배출한 전통을 이어받아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담과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연세대학교가 그동안 여러 방면에서 진행해 온 다양한 사업들을 한 차원 격상시켜 질이나 규모 면에서 새로워진, 공적개발원조의 틀과 형태를 갖추도록 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와, 의료선교를 준비하는 후보생들에게 실제적인 준비와 멘토링을 제공하고자 하는 열망들로 이번 2학기를 다시 설레임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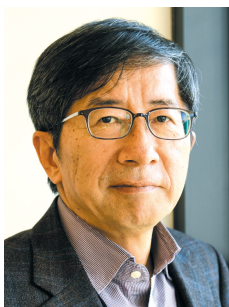
특히 이번 2학기에는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 12개국의 20여명에 이르는 외국 학생들을 초청하여 글로벌보건안보구상 분야의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그 사업의 책임을 맡으신 노재훈 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게 맡겨진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그동안 국내에서 유지해 오던 명성을 국제사회에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보건의료분야의 글로벌인재들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들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보건대학원에는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기에 충분한 실력과 자격을 갖추신 교수님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성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이번 과정을 운

영하는 중에 보건대학원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글로벌 사회공헌원을 설립하여 우리 대학원의 손명세 교수님을 원장으로 추대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명예원장으로 초청하여 반기문지속가능개발 센터를 설립하는 등 연세대학교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보건대학원은 특별히 보건의료분야의 지속가능개발 목표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학문적인 연구와 인적자원의 훈련 및 개발도상국의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분야의 협력 사업을 통해 보건대학원이 단지 상아탑에 갇힌 학문연구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솔루션수범하여 현장에 참여하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관으로서의 모범을 국내외에 제시함으로 글로벌 리더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재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로 보건의료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이 상호협력과 투자에 의한 양자협력의 결과로 탄생된 제중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보건대학원은 지금까지 한국의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있어 수많은 이론적인 기반과 이에 근거한 실제적인 모델 및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분야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도록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의 보건의료분야가 단지 세계적인 수준의 성과들을 배출해 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 다른 나라들이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도록 발전해 가도록 돕고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변화되어 가야할 시대적인 사명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서 빈곤을 극복하고 한 세대만에 발전을 이루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모델을 제시한 나라는 아직까지 한국 외에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학자들과 일군들이 한국으로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그러한 시대적 요구의 최전선에 서 있는 선두주자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그렇지 않던 이러한 시대의 요청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함께 준비해 가고, 함께 노력해 나감으로 그러한 사명을 달성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 좋은데요”



국제보건학과 객원교수 안동일
(전 WHO 캄보디아 대표)

#

작년 여름 20여 년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한국땅에 다시 등지를 뜬지 만 일 년이 지났다.

‘20여 년만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사니까 좋으시지요’

‘네. 사계절이 있는 축복의 땅에서 살게 되어 좋습니다’ 봄 가을의 상쾌한 날씨는 말할 것도 없고, 여름은 더워서 또 겨울은 추워서 좋다고 하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의아해 하는 눈치다.

‘대학원에서 강의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금년 3월부터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종종 지인들이 물어온다.

##

3월의 첫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건대학원 강의를 주로 어떤 분들이 수강하는지 동료 교수에게 물어보았다.

‘대부분 낮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 대학원 강의에 참석합니다’

‘...’

나는 잠깐 머뭇거렸다. 아,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때 강의를 들으려면 피곤해서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졸수도 있겠구나. 에듀테이너의 톨런트가 없는 나는 은근 걱정이 되었다.

드디어 첫 강의를 시작되었다. 강의 시간 내내 수강생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열심히 듣고, 필기하고, 질문하고... 강의를 끝나자 교실 밖으로 삼삼오오 깔깔대면서 나가더니, 빠른 걸음으로 건물 밖으로 사라진다. 힘차게.

아 저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

여기저기서 ODA붐이 일고 있다. 연대 보건대학원에서 개설한 ‘ODA 보건 전문가 과정’은 매주 토요일 8시간씩 12주간 진행된 밀도 있는 코스였다. 수강자의 반가량은 50대의 현역 지역 사회 보건요원/간호사들이었다. 아침 강의 시간 전 김밥을 먹으며 즐겁게 모여 이야기하는 수강생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건넸다.

‘토요일 아침에 강의 시간에 맞추어 오시느라 바쁘시지요’ 무심코 던진 질문에

‘전라남도의 보건지소에서 일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 KTX타고 서울에 와서 강의 듣고 있습니다. 국제보건 및 ODA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생생한 필드 경험을 여러 강사님들로부터 들을 수 있어 너무 좋네요’

‘...’

나는 멍해졌다. 한국인의 열정 DNA때문에.

####

난생 처음 그것도 늦은 나이에 가르치는 일을 시작한 필자의 근황을 묻는 지인들에게 첫 학기를 마치고 난 요즈음 나는 이렇게 답한다.

‘네,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나는 곳에서 일하게 되어 좋습니다’



환경보건 발전에 보탬됐으면

졸업생 / 이현정 (환경보건 전공)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 전공 이현정입니다. 막상 졸업생 인사말을 쓰려고 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잘 나지 않네요. 2015년 봄, 신입생 인사말을 쓸 때, 첫 강의를 들으러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동기들과 서로 서먹서먹해서 눈만 마주쳐도 씨익 웃었던 때, 첫 개강모임으로 선배님들과 교수님들과 식사할 때를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 벌써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실수 많고 부족한 점 많은 저를 잘 지도해주신 지도



교수님, 박사님들,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건대학원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강의 덕분에 더 많은 더 넓은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환경보건'이라는 분야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가 차츰 향상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환경보건 전공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건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꾸준히 묵묵하게 공부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 6개월 동안 직장 업무와 학업을 충실하게 해낸 저와 제 동기들, 다른 전공 선생님들 모두 졸업 축하드리며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신입생 / 연정원 (건강증진교육 전공)

안녕하십니까? 역학건강증진학과 건강증진교육전공 신입생 연정원입니다.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종합병원에서 7년 반 동안 임상간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병원에서의 근무가 어렵게 되어 2012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과 건강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보건소의 역할은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소는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써 1차 진료뿐만 아니라 금연클리닉, 대사증후군 관리, 정신보건, 모자보건, 치매관리 등 다양한 보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욱 과학적·체계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기획, 수행 및 평



가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임상간호사로만 근무하다가 지역사회로 나오니 공공보건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저에게는 본 대학원 건강증진교육전공에 입학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교육전공에서 다루는 교과목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사업과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의 배움을 통해 보건사업, 보건교육, 건강증진사업 전문가로서 업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일과 육아, 학업까지 병행하는 것이 아주 힘들겠지만 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가족과 우리 보건대학원 동기들과 함께라면 5학기동안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산업 인재양성 중추기관



이대형 (국제보건 전공)

안녕하세요. 국제보건전공 4학기 이대형입니다. 보건대학원 학우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보건대학원 소식지에 재학생 근무기관을 소개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제가 재직하고 있는 'KOHI'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2004년 KOHI 설립

1946년 중앙보건소 보건교육과에서 시작된 보건분야 교육과 1957년 중앙사회사업종사자 훈련소에서 시작된 복지분야 교육의 통합으로, 2004년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의 준 정부기관으로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전문 교육을 통해 역량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KOHI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

2004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설립을 시작으로 보건복지관련 인력들에 대한 인재양성을 시작 하였습니다. 기관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보건복지관련 분야에 대

한 사업들의 시작되었으며, 2008년 보건복지 관련 사이버교육 및 사회복지요원 직무교육과 2009년 신성장동력 사업인 글로벌헬스케어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충북 청주 오송의 보건의료행정타운으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2015년은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의 개소로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2016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해외진출·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의료통역능력능력검정기관으로 지정 되었으며 2005년 8천 여명의 교육 계획을 시작으로 2017년 53만명 교육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기관 규모의 성장으로 예산 및 인력이 확충 되었으며, KOHI의 미래는 인재양성기관, 정책지원, 인적자원개발 등을 통해 보건복지 종사자의 행복세상 파트너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OHI 보건산업교육본부에서 근무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보건산업교육본부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9-10층)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와 현안사업을 지원하고 인큐베이팅 하며 특히, 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및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화 교육을 기획하여 지원하고 전주기적인 인재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도 보건산의료산업 관련 교육을 소개하고 교육을 통해 역량 향상 기회를 갖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2017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실시

2017학년도 후기 입학시험이 지난 5월 27일(토) 보건대학원 각 강의실에서 전공별로 실시되었습니다. 9개 전공에 53명(정원 50명, 정원외 3명)을 선발하는 이번 입시에는 143명이 지원하여 2.19: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 합격자 발표 : 2017. 6. 12 (월)

2. 2017학년도 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8월 18일(금)부터 1박2일간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신입생, 재학생 및 교수진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첫날 행사에서는 노재훈 원장, 동창회장 및 총학생회장의 환영사와 GHSA 석사과정생들과 함께한 저녁 만찬, 총학생회 주관으로 환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일째에는 홍보영상 감상과 학칙 및 제반학사 안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 2017년 8월 학위수여식



2017년 8월 학위수여식이 8월 25일(금) 11:00 본교 대강당에

서 개최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우리대학원은 석사과정 62명의 보건학 석사를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이은정(최우등, 보건정책관리) 졸업생 외 6명이 선정되어 우등상 및 학위증을 수여 받았습니다.

4.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



학기 중 317호 여학우 휴게실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를 폐기하고, 전체 도색 및 회의 테이블 및 의자, 유리 화이트보드, 빔프로젝터 시설을 구비하였습니다. 석사 수업 시간대에는 여학생 휴게실로 이용함과 동시에 이외 시간에는 보건대학원 학생 및 교직원의 회의실 및 세미나실로도 사용가능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회의/세미나용으로 이용 시 사무팀에 사전 예약을 필요로 합니다.

5. 보건대학원 기관윤리위원회(IRB)

각 기관별 기관윤리위원회(이하 IRB)를 대신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연세의료원내 보건대학원,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구성원이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를 심의하는 통합 IRB가 설치되었습니다.

본 통합 IRB는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의 e-IRB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며, 표준화된 절차를 따라 연구 참여자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특히 학문간 융합연구, 인간대상연구의 전문적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학생 연구자들이 전문연구자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연자 초청

▶ 국민건강증진연구소 외국 연자 초청

1) 2017. 4. 10. Epidemiology Division, Office of Global Public Health Education & Training의 Prabhat Jha교수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최근 연구소의 연구 내용과 Prabhat Jha교수의 관심 분야를 서로 나누고 다시 한 번 협력 관계를 굳게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2) 2017. 7. 5. 6월 27일부터 우리 연세대학교에 연수 차 방문한 school of public health, Indiana University의 서동철 교수가 한 달 가량 보건대학원 315호에서 머물며 국민건강증진연구소의 연구 협력 자문을 하였으며, 'Moderators and Mediators of Treatment Outcomes'라는 제목으로 제 38차 역학건강증진학과 세미나에서 특강을 진행 하였습니다.



▶ 보건정보통계학과 외국 연자 초청

● 지난 2017년 6월 16일에는 보건대학원 보건정보통계학과와 일반대학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주관으로 호주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의 Louise Ryan 교수님을 초청하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Louise Ryan 교수님은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보건통계학과 교수와 학과장으로 2011년까지 재직하셨고, 보건통계 분야의 최대 규모 학회인 International Biometric Society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동향과 함께 "Statistical strategies for the analysis of large and unruly dataset" 라는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 병원경영학과

- 2017년도 병원경영학과 신년하례식이 1월 4일 종로 옥토버 페스트에서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교수님과 현재 재직 중인 교수님과 함께 졸업하신 선배님, 재학생, 2017년 신입생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경영학과와 전통 행사인 신년하례식을 진행하면서 병원경영학과 학생의 자부심을 느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2017년 전기 졸업생 환송회 및 신입생 환영회가 2월 27일 신촌 초당쌈밥에서 있었습니다. 약 3년간의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한 졸업생들에게는 졸업축하 인사와 앞으로 함께 공부할 신입생에게는 환영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신년하례식



▲졸업생 환송회 및 신입생 환영회

- 3월 21일에는 2017년 1학기 병원경영 개강총회가 있었습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며 다같이 열심히 학업을 하자는 의미로 교수님과 재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의기투합하는 자리였습니다.

- 7월 15~16일 강화도 마니산에서 병원경영학과 하계MT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동기 및 선후배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자연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강 총회



▲하계 MT

■ 보건정책관리학과

- 2017년도 2월 졸업생의 환송회 및 신입생 환영회 행사를 2월 14일에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약 3년간 부단한 노력으로 졸업이란 결실을 맺게된 졸업생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앞날의 행운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2017년도 1학기 보건정책관리학과에 새로이 시작을 하는 신입생을 환영하는 화합의 시간의 가졌습니다.



- 2017년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수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리고자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님과 재학생이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행사를 통해 교수님들과 재학생간의 만남을 통해 학과 내 유대관계 증진 및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6월 13일에 보건정책관리학과 사은회 행사가 신촌역 예술리에서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물심양면 학생들의 학업과 대학원 생활이 이바지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학우 간의 교류를 통해 보건정책관리학과 일동이 하나되는 화목한 시간이었습니다.

■ 국제보건학과

-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는 '2017 보건대학원 베트남 수학여행'이 진행하였습니다.

국제보건전공지도를 맡고 있는 서원석 교수, 이명근 교수를 비롯하여 보건대학원 교직원 및 학생 총 24명이 참여하였으며, 베트남 후에 대학교 방문, 베트남 보건의료기관 방문, 다낭, 후에, 호이안 지역 문화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수학여행에 참석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은 베트남 후에 대학교에서 베트남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Anh Phuong 교수의 특강과 베트남 간호인력 현황에 관한 Maibahai 교수의 특강을 통해 베트남 보건의료 현황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보건전공 이명근 교수가 베트남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ODA 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다낭 병원 등의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하며 직접 베트남 보건의료체계를 접해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 보건정보통계학과

- 2017년 3월 10일(금) 신촌 형제갈비에서 보건정보통계학과 2017-1학기 개강모임이 있었습니다. 남정모 교수님, 박소희 교수님과 신입생, 재학생이 함께 모여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학생, 선후배들의 더욱 구체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보건정보통계학과 멘토-멘티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7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하계 세미나 및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보건정보통계학과와 남정모 교수님, 박소희 교수님과 재학생들이 함께 모여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졸업생들이 논문작성 에피소드 및 팁을 공유해 주어 정보공유와 화합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 역학건강증진학과

- 2017년 2월 21일 제 37차 학과 세미나에서 우리학과 졸업생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백승수 선생님이 '빅데이터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 하였습니다.



▲2017년 2월 21일 제37차 학과 세미나

- 2017년 3월 13일 신촌 함평면옥에서 2017년도 1학기 역학건강증진학과 개강모임이 있었습니다. 1학기부터 5학기까지 우리학과 학생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새학기 새마음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17년 3월 13일 2017년도 1학기 역학건강증진학과 개강모임

- 2017년 7월 1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중합관 331호에서 2017년도 역학건강증진학과 'Summer research day'를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재학생 주관으로, 전공 분야 지식의 폭을 넓히며, 학과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되는 우리 학과 자랑거리 중 하나인 이번 SRD에는 지선하 교수, 김희진 교수, 동문 및 재학생 약 50명이 모여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선후배 간의 만남의 시간을 가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재학생 분임토의 시간을 통해 학과 발전방향 및 교수님과의 소통 증진 방안에 대한 안건을 다루었으며, 특히 5학기 졸

업예정자들의 학위논문 발표 시간을 마련하여 각자의 학위논문 연구에 더욱 의의를 두고, 앞으로 학위논문을 준비할 학생들에게는 미리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2017년 역학건강증진학과 Summer research day

- 2017년 7월 5일 제 38차 학과 세미나에서 school of public health, Indiana University의 서동철 교수가 'Moderators and Mediators of Treatment Outcomes'에 관한 특강을 진행 하였습니다.

■ 산업보건전공

- 2017년 5월 20일 춘계 보건대학원 동문 산행을 안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2017년 7월 21~22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산업보건 하계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산업보건 하계 실습

■ 환경보건전공

- 2017년 2월 24~25일 경기 퇴촌에서 교수님, 재학생들과 1박 2일 MT를 다녀왔습니다. 첫 날은 5학기의 논문계획서 발표 후 저녁식사가 있었고, 둘째 날은 경기 광주 남한산성 둘레길 산책을 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으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2017년 4월 10일 신촌 태화루, 신촌호프에서 재학생들과 교수님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신동천 교수님, 임영욱 교수님, 양지연 교수님과 재학생이 함께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17년 7월 14일 사당역 돈방보쌈, 품앗이에서 교수님, 재학생, 졸업생 모임이 있었습니다.

NEWS

고위·전문가과정

1. 제30기 고위과정 '통일 의료와 디지털 헬스' 입학식

(2017년 4월 10일(월) 저녁 6시)

- 장 소 : 그랜드힐튼 서울호텔 본관 2층 '플라밍고룸'
- 참 석 : 과정생 23명, 교직원 10명 참석



▲고위과정 입학식

4. 보건 의료 정책과정 해외연수

(2017년 6월 24일(토)~29일(목))

- 장 소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참 석 : 과정생 9명 (인솔교수 : 원장님, 담임교수님)



▲고위과정 수료식

2. 제30기 고위과정 '통일 의료와 디지털 헬스' 총장공관 만찬

(2017년 5월 22일(월) 저녁 6시 30분)

- 장 소 : 연세대학교 총장공관 영빈관
- 참 석 : 과정생 25명(부부동반), 교직원 10명 참석



▲고위과정 총장공관 만찬

5. 제30기 고위과정 '통일 의료와 디지털 헬스' 수료식

(2017년 7월 24일(월) 저녁 6시)

- 장 소 : 그랜드힐튼 서울호텔 본관 2층 플라밍고룸
- 참 석 : 과정생 20명, 교직원 13명
- 특 강 : 정의화 제19대 국회 국회의장 "행복한 삶 어디 있나요?"



▲보건 의료 정책과정 해외연수

3. 제30기 고위과정 '통일 의료와 디지털 헬스' 해외연수

(2017년 6월 9일(금)~11일(일))

- 장 소 : 일본 교토, 나고야
- 참 석 : 과정생 7명, 인솔교수(원장님, 담임교수님)



▲고위과정 해외연수

NEWS

국제사이버보건대학(ICUH)

1. 2017년 봄학기에 국제사이버보건대학 (International Cyber University for Health, 이하 ICUH) 강의를 수강한 학생은 총 8명입니다.

2. 2017년 4월 4일부터 7월 22일까지 ICUH 봄학기가 진행되었습니다. Research Methods in Health(Prof. Young Moon Chae), Biostatistics (Prof. Sohee Park), Health Promotion (Prof. Hee Jin Kim), Bioethics and Health Law (Prof. So Yoon Kim, Prof. Il-hak Lee) 총 4과목의 강의가 개설되었고 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지난 학기부터 학생들과 교수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진행된 Skype 세션을 통해 학생들의 궁금증과 과정에 대한 제안사항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이러한 세션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습니다.

3. 한편 ICUH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ICUH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석사학위 정도에 준하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교육 자료로 기존에 파워포인트 파일로 제공되었던 강의 자료를 비디오 강의로 대체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생동감 있고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ICUH를 운영하는 우리대학 뿐만 아니라 ICUH MOU 기관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고자 제49회 APAPCH에서 ICUH 발전방안 관련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여러 보건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ICUH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ICUH 홈페이지 구축이 선행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icuh.aibhl.org) 홈페이지는 크게 ICUH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학생들이 제공 받을 수 있는 강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ICUH 홈페이지: <http://icuh.aibhl.org>



▲2017년 08월 17일 ICUH 발전방안 회의

PEOPLE & PEOPLE

■ 노재훈 교수

- 3월 10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본관에서 개최된 대한직업환경 의학회 지도전문의 워크샵에 참석하였습니다.
- 5월 12일 여의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지부에서 개최한 제58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봄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대외활동으로는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15th World Congress on Public Health에 참석하였습니다.
-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린 국제 산업역학 학술대회(EPICOH 2017)에 참석하였습니다.

■ 이상규 교수

- 의료원의 해외사업을 총괄하는 해외사업단의 단장으로 중국 칭다오에 1,000병상 규모의 “(가칭)세브란스칭다오병원”을 설립 하는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보건 의료 R&D 중장기 전략기획단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습니다. 한국병원경영학회 국제부회장 및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감사, 아시아 최대 의료관련 컨퍼런스인 Korea Healthcare Congress program committee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보건산업진흥원의 의뢰로 “중국 건강보험 제도 연구를 통한 한국 중합병원 진출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고 다수의 병원에 초청받아 미래의료와 병원산업에 대해 특강을 하였습니다.
- Health Policy,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등에 5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김태현 교수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발주한 ‘조기 전문재활치료 활성화 위한 산재수가체계 개선 및 진료비심사 체계 개선방안’과 ‘산재보험 재할치료 시범수가 효과성 분석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병원경영학회 편집위원장,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총무이사, 한국보건행정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국외 논문을 ECONOMICS & HUMAN BIOLOGY, APPETITE,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AMERICAN JOURNAL OF NEPHROLOGY에 게재하였습니다. 국내 논문을 한국치위생학회지와 병원경영학회지에 게재하였습니다.

■ 정우진 교수

- 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간 건강보장제도 성과 비교 및 성인 비만 등 건강수준 결정요인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박은철 교수

- 2017년 2월 23일 대한외과학회 건강보험 심포지엄에서 ‘외과수가의 현실과 대응전략과 바람직한 보험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하였고, 3월 15일 보건복지부 R&D중장기기획단에서 ‘보건의료 R&D 발전방향’, 5월 19일 보건의료평가학회에서 ‘포괄수가제도에 있어서 신의료기술 접근성’, 5월 24일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의 메르스 2년 감염병 관리체계 변화에서 ‘감염병 관리체계: 중앙정부조직 개선방안’, 6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의 국민건강보험 40주년기념 암극복 평생건강 실현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에서 ‘국가암검진의 비용효과’, 7월 7일 4th Severance Cardio-Cerebrovascular Research Cluster Annual International Symposium에서 ‘Challenges and direction of healthcare R&D in Korea’를 발표하였습니다.
- 현재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 대학원 보건학과 주임교수,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소장,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전공지도교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및 정책개발위원회

PEOPLE & PEOPLE

위원, 보건복지부 R&D 중장기전략기획단 총괄위원회 위원 및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 위원 및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위원 및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회 위원, 한국의료지원재단 지원위원회 위원, 대한예방의학회 제도정책위원회 위원장, 보건행정학회지 편집위원장, 대한보건협회 이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게재 또는 게재 예정인 학술논문은 국내잡지 11편, 국제잡지 53편이며, 현재 3개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성인 교수

• 현재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조교수,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 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소프트웨어 감사심의위원회 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보건행정학회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17년 4월 1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연수교육에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6월 24일 대한내과학회 입원전담전문의 워크샵에서 '미국 입원전담전문의제도의 현황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2017년 발표한 학술논문은 국내잡지 2편, 국제잡지 4편이며, 현재 2개의 연구과제 (입원 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방안 연구용역, 소아암의 역학 및 사회경제적 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남정모 교수

• 2017년 현재 대외활동으로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평가원 등에 관련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여러 임상분야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7편의 논문을 저술하였습니다.

■ 박소희 교수

• 2017년 4월 대한소화학학회에서 '임상의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 고려사항', 4월 한국간호과학회에서 '연구 설계에 따른 논문 작성 및 심사 요령', 6월 Asian Pacific Cancer Conference에서 'Attributable Causes of Cancer in Korea', 7월 디지털병원 수출조합 세미나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의 주제로 다양한 구연 발표를 하였습니다.

• 교내에서는 빅데이터활용 위원회, 신촌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IRB의 통계전문심사위원으로, 교외에서는 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대한보건협회 이사, 중앙암역학조사반 위원, 국립재활원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위원회 위원, 국가정밀의료 운영위원회 위원,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와 한국역학회의 교육위원장 등을 맡아 다양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BMJ, Dig Dis Sci, BMC Public Health, Oncotarget 등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였고, 정책연구과제인 '소아암 발생 및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모성 요인과 소아암 생존자의 포괄적 건강상태 평가 및 의료이용 연구'를 총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선하 교수

• 2016년 현재 대외활동으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보건복지부 금연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교내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학과 주임 교수 및 국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 2017년 6월 30일 부로, 대한금연학회 회장에 선임되어, 앞으로 향후 2년간 학회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 MRC와 보건산업진흥원이 함께 지원하는 국제 networking award에 국민건강증진연구소가 선정되었습니다.

• 2017년 7월 1일부터 대한금연학회 회장에 선임되어 2년간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PEOPLE & PEOPLE

• 2017년 6월 19-24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제 50차 역학회에 참석하여 가족성 이상지혈증과 심장병, BPA와 뇌졸중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7월 11-13일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열린 Mendelian randomization 학회와 8월 19-23일 일본에서 열린 세계역학회에 참석하여 각각 논문발표를 하였습니다.

• 발주기관 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암센터 등의 연구과제를 총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성과로 다수 국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보건학의 발전과 후학양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 김희진 교수

• 2017년 4월 7일 제45회 보건의 날 행사에서 건강증진 분야 금연사업과 사업평가체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 대장암 생존자 포괄관리 프로그램 개발, 가향담배와 흡연시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2016년 하반기 Journal of Geriatric Cardiology 등 3건, 2017년 상반기 Lancet Diabetes Endocrinology 등 2건의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 신동천 교수

•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개최된 CleanMed conference에서 'Environmental Health Hero Award'를 받았습니다. 신동천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환경보건 10개년 계획을 주도했고, 세계의사회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이끌어 왔으며, 친환경병원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헌신을 인정받아 미국 외 국가에서는 최초로 수상하였습니다.

• 환경공해연구소 소장으로서 다수의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주로 화학제품 및 유해화학물질, 식품 중 중금속,

환경호르몬, 위해의사소통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김소윤 교수

• 보건의료법윤리 및 환자안전 분야에서 '인간유전체 ELSI 센터', '미래안전사회를 위한 의료 환경 및 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3차년도)',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 진료 권고안 개발? 제2세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관련 권고안 개발', '급성기 의료기관 중심의 노인 진료제공체계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연구',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분류체계수립 연구용역', '정밀의료 연구 자원 개발 사업'을 위한 사회·윤리적 기반 마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인체유래물은행의 유전체 정보 보호 현황과 제언: 2015년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ELSI 사업의 현장실태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정밀의료에서의 개인정보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미국, EU, 일본과의 비교법제도 분석을 중심으로', '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문제?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에 대한 학술 논문 저술을 지도 하였습니다.

• 저서 활동으로는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이라는 제하로 내과(심장), 산부인과(산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에 관한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 대외활동으로는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양일간 태국 방콕에서 진행되었던 1st APACPH Bangkok Region Conference에 참석하여 국제보건정책 주요 의제대응, SDG 2030 의제 달성 관련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국제보건 및 통일보건 분야에서는, '가나 유하스대학 보건의료교육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남북한의료연구소에서 발주한 '북한의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대북 지원 고찰' 연구를 진행하여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 대외 활동으로는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방문에서 진행된 '제70차 WHO 세계보건총회'에 대한민국의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였으며,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인

PEOPLE & PEOPLE

천 송도에서 진행된 ‘아태보건대학원협의체(APACPH)’의 사무총장으로 참석하여 국제보건정책 주요 의제대응, SDG 관련 공중보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무임소이사, 대한환자안전학회 총무이사, 국제보건의료학회 이사 및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자문위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안전정책전문위원회,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운영위원, 통일보건의료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 서원석 교수

• 3월부터 16주간 진행된 우리 대학원의 ‘ODA 전문가 과정’ 주강사로 수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원의 제30기 고위자과정, ‘통일의료와 디지털 헬스’의 담임 교수로 4월부터 7월 까지 16주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동 과정의 일환으로 일본 나고야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 4월 8일 동덕여대 대학원에서 개최된 국제보건의료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에서 ‘국제보건 사업평가 현장 접근 방법론 소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 5월 16일 보건산업진흥원 주최의 Medical Korea Academy 연수에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중국,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등 25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Health System of Korea’에 대해 특강을 하였습니다.

• 5월 20일 국제한인간호재단에서 주최한 국제보건 전문가 과정에서 Community Participation이라는 주제로 훈련을 담당하였습니다.

• 5월 29일 미래부 NIPA 헬스케어 ICT 융합컨소시엄에서 주최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의료 심포지엄’에서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측면에서의 헬스케어 ICT 융합사례에 대해서 발제를 하였습니다.

• 6월 30일 건국대병원 국제의료연구소 세미나에서 ‘세계는 넓고 아픈 사람은 많다’라는 제목의 강연을 시행하였습니다.

• 7월 28일부터 8월 4일 까지 KT와 의료원의 공동 사업인 방글라데시 GiGa Island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모헤시칼리 섬 및 다카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 원종욱 교수

• 2017년 3월 10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본관에서 개최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지도전문의 워크샵에 참석하였습니다.

• 2017년 4월 8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1강의실에서 개최된 대한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 춘계 연수에 참석하였습니다.

• 2017년 4월 26일~5월 1일 대만 카오슝의과대학에서 개최된 제22회 아시아산업보건학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2017년 5월 12일 여의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지부에서 개최한 제58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봄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윤진하 교수

• 2017년 1월 16일 인천근로자건강센터에서 개최된 제8차 한일 참여형개선활동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하였습니다.

• 2017년 3월 10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본관에서 개최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지도전문의 워크샵에 참석하였습니다.

• 2017년 4월 8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1강의실에서 개최된 대한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 춘계 연수에 참석하였습니다.

• 2017년 4월 26일~5월 1일 대만 카오슝의과대학에서 개최된 제22회 아시아산업보건학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2017년 5월 12일 여의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지부에서 개최한 제58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봄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총동창회 조찬특강(4/18(화) 오전 7시30분) 개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총동창회(회장 조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 병원)는 2017년 4월 18일 모교 상남경영원에서 한반도통일의료연구소 김정용 소장(경북의대 외래교수, 열대의학박사)를 초청하여 '통일의료의 시험장'이라는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조찬모임에는 유승흠 명예교수(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 신언항 동창회 고문(인구복지협회장, 전 보건복지부 차관), 성동경 고문(성치과원장), 용왕식 고문(경민대학교 교수), 윤여룡 부회장(서울대학교병원) 등 동

창회원 20여명과 정종훈 연세대 교목실장, 연세의료원 강희철 교수(가정의학과)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강사인 김정용 소장은 현재 한반도 통일의료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최장기 개성공단 협력병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날 강의에서 통일대비 북한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과 의료격차 해소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연세대학교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시대 보건의료인의 역할에 대해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건대학원 총동창회는 정기적으로 통일보건医료를 주제로 조찬 강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5회 세미나로 동창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동문사업장 방문 안내

- 방문기관 : 인구복지협회(회장 신언항 동창회 고문)
- 방문일시 : 2017년 9월 5일(화) 오후 7시
- 참석신청 : 총동창회 강성원 국장
(010-3741-3972, vvsltsle@chol.com)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총동창회

- 동창회원 : 5만원, 졸업동문 5만원(졸업시 납부)
- 특별회비 : 연세 보건인의 밤 행사 등 특별행사 찬조 및 협찬
- 2. 보건대학원 총동창회 계좌
- 기업은행(IBK) 527-019229-01-012
윤수진(연대보건대학원동창회)

◇ 2017년 연세 보건인의 밤 안내 (보건대학원 설립 40주년 기념)

- 행사일시 : 2017년 12월 4일(월) 오후 6시
- 행사장소 : 연세동문회관 3층 대회의실
- 참가비 : 5만원
- 참석신청 : 총동창회 강성원 국장
(010-3741-3972, vvsltsle@chol.com)

◇ 2017년 동창회비 입금 안내

- 정기회비 : 매년 1회 납부
 - 회장단(동창회 회장, 부회장) : 30만원
 - 고문, 자문위원, 이사, 사무국 : 10만원

◇ 활동 안내

- 근조기 운용 : 플렉하이웨이
 - 결혼 및 조사가 있는 회원께서는 동창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총동창회 사무실 및 연락처
 - 담당자 : 강성원 국장
(010-3741-3972, kangseongweon@gmail.com)
 - 주소 :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동문회관 2층
 - 연락처 : Tel. 02-312-6879,
Fax. 02-6008-7928
E-mail. vvsltsle@chol.com

원

우

회

● 3월 29일에 제 25대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연합회 출범식이 부총장님과 내외빈, 동문, 재학생 원우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8개 대학원 원우님들의 관심과 참여로 학교의 발전과 개개인이 자랑스러운 연세인으로서 긍지를 도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4월 28일 원우회 주관으로 '같이(Together)데이(Day)'를 개최하였습니다. 졸업생 및 재학생 70여명과, 지선하, 남정모, 서원석, 박은철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연세대보건인이라는 이름으로 학과에 상관없이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노재훈 원장님 이하 보건대학원 교수님들께 비누 카네이션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교수님과 재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행사였습니다.

● 5월 20일 안산에서 연세보건인 상반기 정기 산행이



있었습니다. 노재훈 원장님을 비롯한 각 학과 교수님과 행정 조교 및 행정직원들 모두가 봄날의 기운을 만끽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또한 재학생과 졸업생이 참석하여 보건대학원의 동문으로서의 동질감과 하나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5월 26일 삼각지에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 원우회분들과 함께 교류의 장인 '더럽(The Love)데이(Day)'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청춘연애 사업까지 활발하게 진행하여, 타 대학원과의 교류와 화목의 장을 만들 수 있었고, 행사를 계기로 총 다섯 커플이 탄생하여 모두의 축하를 받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6월 27일 원우회에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대표하여 "제1회 연세리더스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대학원 총연합회 및 각 대학원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본교 대학원 발전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지 사항 · 학사 안내

〈2017-2학기 주요 일정〉

- 1) 학위논문 심사기간
 - * 예비심사 : 10.16(월)~20(금)
 - * 본심사 : 12.4(월)~8(금)
- 2) 2017년 가을산행(총학생회주관) : 미정
 - * 산행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총학생회에서 공지 예정
- 3) 2017-2학기 채플 : 10.11(수) 18:30 종합관 331호 강의실
- 4) 2018-전기 신입생 모집
 - * 원서접수 : 11.1(수)~3(금)
 - * 면접고사 : 11.25(토) 13:00
- 5) 2017년 연세보건인의 밤 : 12.4(월) 18:30 동문회관 대회의장

